

충북도지회, 충북낙농발전 청년회 발대식 개최



협회 충북도지회는 5월 2일(목) 충북낙협 2층 회의실에서 신관우 충북도지회장(충북낙협조합장), 농축식품부 우만수 사무관, 충북도청 현공을 축산과장, 협회 오세정 이사, 김태선 이사, 김순영 前 부회장, 이경훈 이사, 이명환 청년분과위원장, 이용욱 청년분과부위원장 등 낙농지도자를 비롯, 60여명의 충북지역 낙농후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충북낙농발전 청년회 발대식을 개최하였다. 이날 행사에서 신관우 충북도지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낙농가구수가 급감하고 있는 현실이지만 절대 낙농산업은 어둡지 않다”며, “경쟁력있는 농가로 성장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농가필요에 타당성이 있으면 적극적인 행정적 지원이 뒤따라 한다”고 강조하면서 “청년낙농의 미래에 도움이 되는 조합이 되겠다”고 밝혔다.

낙농정책 강연자로 초청된 우만수 사무관은 유단백 도입을 골자로 한 원유가격 산정체계 개선안의 합의와 더불어 연간총량제의 계절상한선의 폐지와 진흥회 농가쿼터 인수도시 귀속물량의 10% 하향조정의 결정된 진흥회 이사회 결과를 설명하면서 “갈수록 낙농이 고령화 되고 있지만 후계낙농인들의 의욕이 꺾이지 않고 낙농을 영위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후계낙농인들의 모임발족의 축하를 위해 참석한 협회 이명환 청년분과위원장은 대한민국 낙농산업을 이끌어 나갈 후계낙농인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함을 강조하면서, 협회 청년분과위원회도 젊은 후계낙농인들이 목장을 경영하는데 좌절하지 않도록 권익대변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